

# 김삿갓 방랑 뗏은 자리... 화순 '이서 적벽' 42년 만에 개방

### 광주시-화순군, 상생사업 협약식·적벽제 개최키로

### 다음달 23일부터 일반 공개... 탐방객 사전예약제 도입

호남권의 대표 절경인 이서 적벽(赤壁)이 42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이서 적벽 개방은 민선 6기 들어 광주·전남의 상생을 기치로 내건 윤장현 광주 시장이 구종근 화순군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현된 것이다.

22일 광주시와 화순군에 따르면 윤장현 시장과 구종근 군수는 10월 6일 광주시의 상수원보호구역인 화순군 이서면 동북담내 적벽 개방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 협약서 교환식을 갖고, 같은달 23일에는 이서 적벽 현장에서 개방행사 및 이서 적벽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동북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위치한 적벽은 지난 1982년 전남도 기념물 제60호로 지정됐으며, 앞서 1973년 5월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물지역민에 한해 설, 추석, 한식날 등에만 별초·성묘를 허가하고 일반인의 접근은 철저히 통제돼 왔다. 화순군은 지난 2012년부터 동북담 관

리 권한이 있는 광주시를 상대로 화순 8경 중 으뜸인 적벽의 개방을 요청해 왔으며, 광주시는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발전 사업의 하나로 개방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다음달 23일부터 적벽 개방에 따른 관리·운영을 맡게 되며, 탐방객 제한을 위한 사전예약제가 도입된다.

25인승 전용차량(버스)으로 주 3회, 1일 2회(오전, 오후)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임도를 이용해 망향정(望鄕亭)까지 이동한 뒤 관람하게 된다. 다만 겨울철 3개월간(12월~2월)은 안전 등을 이유로 개방행사를 중단할 계획이다. 또한 적벽 개방에 따른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쓰레기 투기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시민의 식수원 수돗물이 화순 동북에서 제공되는 만큼 개방에 따른 관리 등도 철저히 하겠다"면서 "특히 그동안 소원했던 광주 인근 나주,



화순군 이서면 동북담 내에 위치한 이서 적벽이 다음달 23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이서 적벽과 어우러진 동북 수원지의 모습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담양, 장성, 함평 등 5개 시·군과의 상생 프로그램 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서 적벽은 화순군의 동북쪽 이서면 장학리 동북담 내에 위치한 적벽이

다. 조선 선조 때 고경명(1533~1592)의 무등산 기행문인 유서석록(遊瑞石錄)에 따르면 애초 석벽으로 불렸으나 기묘사화로 동북에서 유배생활을 한 신재 최산

두(1483~1536)가 중국 양쯔강(양자강) 상류에 있는 적벽과 비슷하다고 해 이서 적벽으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동북천의 상류인 창랑천 유역과 무

등산에서 발원한 영신천의 잔잔한 물 위로 비치는 적벽의 모습은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놓은 듯한 작각에 빼질 정도로 절경이다. /박진표기자 lucky@

##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무산

### 공무원 노조 저지... 새누리당 특위 내달중 개혁안 확정키로



공무원노조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연금개혁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노조원 500여 명이 토론회장에 대거 참석해 "연금개혁 해체",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결국 오전 10시27분 토론회 취소를 선언했다. 노조원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회의장 앞

쪽 좌석을 모두 차지하고 구호를 복창했으며, 일부 노조원들은 육설을 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김무성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도 외치기도 했다.

학회 소속 사회자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이한구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 등은 이 같은 소란 속에 토론회를 진행해보려 했으나 소음과 반발이 너무 심해 포기하고 20분여 만에 퇴장했다.

당 경제혁신특위는 이후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중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정리해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퇴직 후 1인당 5억3천만원 받아 보험료 1억4천... 4억은 국민 부담

### 공무원 연금 분석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5억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납입한 보험료는 평균 1억4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공무원 1인당 4억원 안팎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연금자체가 공무원들의 열악한 보수와 복지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연금 수준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해 부족분을 채우고 있어, 정부는 앞으로 지급할 연금을 모두 부채로 충당해야 한다.

22일 한국금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2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 정부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래의 연금총액을 작년

말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액수다. 이런 개념을 "연금충당부채"라고 한다.

작년 말 시점으로 정부가 공무원에게 미래에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액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169조다.

이를 지난해 말 기준의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32만1098명)로 나눠 공무원 1인당 앞으로 받게 될 평균 퇴직연금을 산출한 것이다.

물론, 공무원들은 미래에 연금을 받으려고 재직할 때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의 보험료(기여액)를 납부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30년으로, 1989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할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기여액의 현재가치 대비 급여액의 현재가치)는 3.68이다. 자신이 낸 금액 대비 받는 금액이 3.68배라는 의미다. 이를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30여년간 낸 평균 보험료는 대략 1억4300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이 부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공무원 한 명당 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개천절 행사, 대통령 참석해야"

### 국학원 등 33개 시민단체 청원

국학원과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 등 33개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의 참석을 요구하는 등 위상을 바로 세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로 4347번째를 맞는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상

징하는 국경일"이라며 "하지만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경축행사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5대 국경일 가운데 3·1절과 광복절 등의 행사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있지만, 개천절의 경우 지난 노태우 정권 때부터 국무총리가 참석해왔다고 이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 전남 1만5천가구 여전히 연탄 사용

전국 100가구 중 0.84가구가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상공동체복지재단과 서울연탄은행은 22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2014년 연탄사용가구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6만8473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총 가구 수 대비 0.84%에 해당하는 규모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은 1만5000여 가구로, 경북(4만7000여 가구), 강원(3만4000여 가구)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가구 수 대비 연탄사용가구 비율은 강원이 5.3%로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특히 전국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대부분은 수급자·차상위·소외가구였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기름보다 가격이 저렴해져서보다는 가계부담을 덜고 난방비를 줄이고자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27만여 가구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던 연탄사용 가구도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연탄사용가구는 2011년 15만7000여 가구보다 6.7% 늘어났다. 발상공동체복지재단과 서울연탄은행은 원인으로 저성장, 소득 감소, 서민물가 인상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층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1110-증-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대)  
항노화치료  
기미클리닉  
성형외과  
지방이식 흡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텍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① 리프팅레이저: 볼세라, 써미지, 해나겟 복합치료
- ② 아드름 레이저: 스무스원, 아이슬, 브이빔, 프락셀
- ③ 체 모 리 어 지: 켈로맥스, 다이오우드제오
- ④ 피 부 미 백: 루미나스원 엑셀V, 켈로맥스 루비레이저
- ⑤ 주름·홍터: 프락셀듀얼, 울트라펄스싱크로, 프렉토라 인트라셀, 프락셀 세나
- ⑥ 모 공: 변티지, 프락셀5종
- ⑦ 비 민: 네오울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텍: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윤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텍: 525-7555